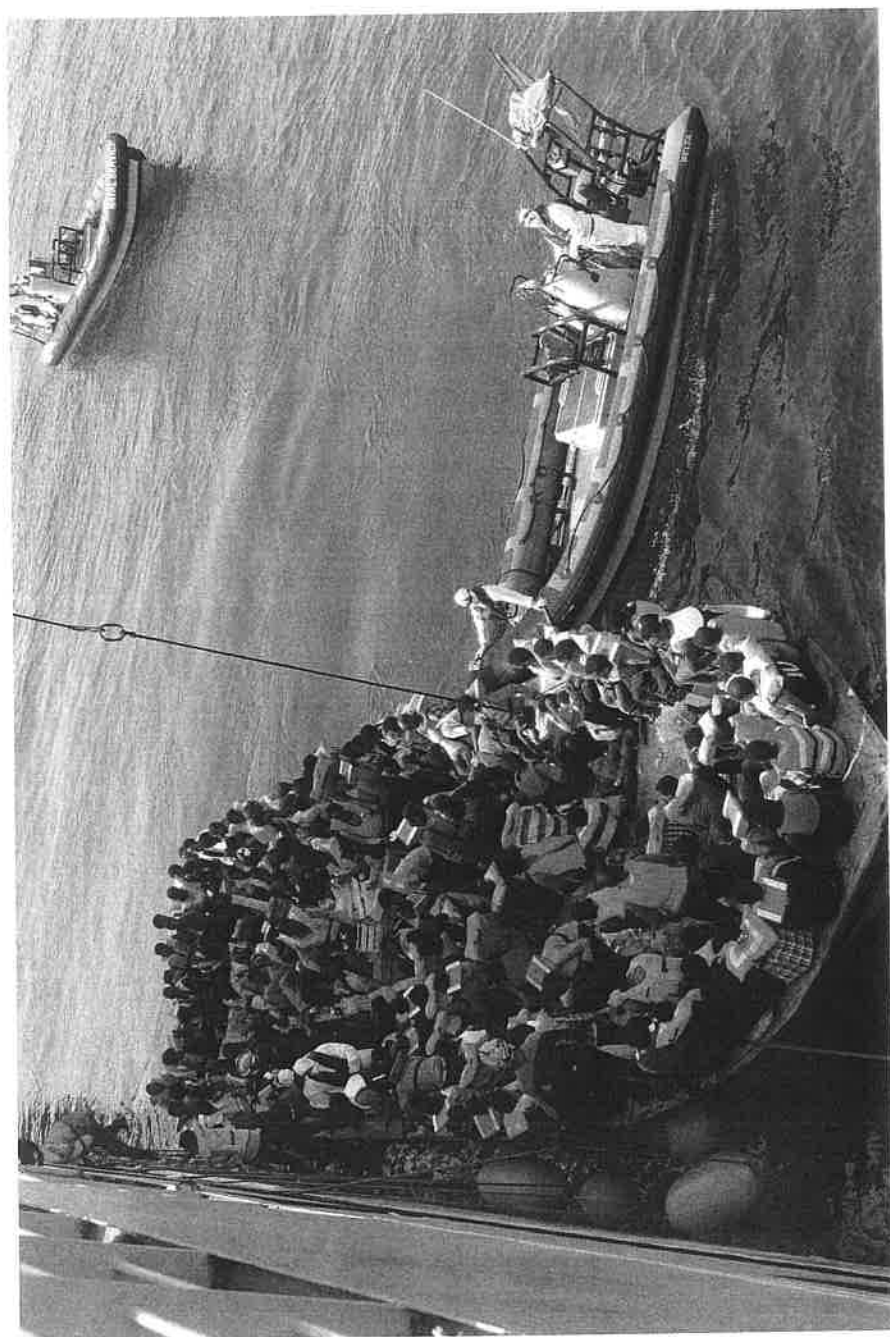




길잡이 II

“주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마르 5,19)

조금만 살아 보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는 경험만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스치는 인간 고통과 불행의 비극에서 삶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고통, 악, 결핍, 그리고 죄의 현상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때문에, 가정, 직장, 교실, 대학살, 회의, 도시의 거리, 투자와 오락이 이루어지는 많은 현장 등, 우리가 인간 비극을 경험하는 곳 어디에서나 거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따뜻한 보살핌을 자각할 때 우리는 죽음의 현실조차도 직면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응답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직면한 죽음의 현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체험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식탁에 앉았던 죄인의 무리에 빈번하게 함께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연민과 자비의 놀라운 신비로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감사와 경외를 느낍니다.

일곱째 순간

청할 은총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신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한 자각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예제 18,25-32

로마 8,2-8

예제 34,1-6

미카 7,1-10

죄의 실체

영신 수련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며 자신을 비우시고 영원한 생명에서 여기 시간 안에 죽음으로 건너오시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나 자신을 보면서 다음 질문이 내 존재를 관통하게 한다.

- ◆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께 어떤 응답을 드렸는가?
- ◆ 지금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응답하는가?
- ◆ 이제는 어떤 응답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올려다보며 주님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속고한다.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영신수련 53)

성경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로마 1,19-31)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헐뜯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제안

신문에서 인간의 고통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표제만 보고 지나치기보다 그 고통의 근원적 원인을 찾으며 읽어 보십시오.

성찰기도

1) 오늘 당신의 경험을 비취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고, 2) 하루 동안 받은 선물들을 살피고, 3) 자비로운 섬리로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께 드린 당신의 응답을 살펴본 후, 그 응답 중에서 죄에 뿌리를 둔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빛을 청하십시오.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체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2티모 3:1-5)

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습다. 우리도 다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에페 2:1-7)

질문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온갖 비참함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 중에서 오히려 인간의 궁핍함을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기를 피하려고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실재를 알려 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더욱 죄에 구속하는 체제 앞에서 겪는 내면의 혼란과 무력감을 당신은 어떻게 다룹니까?
죄의 사회적 차원을 인지하면서, 문제의 일부로 남아 있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함께하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취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은 무엇입니까?

식별 도움말

당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할 변화의 시도를 당신이 어떻게 회피하는지 의식하십시오.
우리가 죄스러운 삶에 떨어져 있거나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는 어떤 시기에 처해 있다면 악한 영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게으른 만족감에 빠지거나 장차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식으로 재안을 하는 것이 보통의 수법이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상상력을 온갖 종류의 관능적 쾌락으로 채워서 악으로 향한 우리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어떠한 의지나 원의도 생기지 않게 한다.(영신수련 34)

여덟째 순간

죄로 말미암아 눈물

정할 은총

당신 자신이 죄와 악에 무감각
하고, 눈멀고 귀머였음을 느낄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2사무 11,1-12,15
시편 130편
루카 18,9-14
루카 15,11-32
루카 13,10-17
마르 10,46-52
루카 5,17-26

영신수련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과 사랑의 선물인 모든 피조물 앞에 내가 속수무책으로 소외된 채 죄인으로 묶여 있다.(영신수련 56)

나에게서 생겨나는 그 모든 악의 무게를 내 전 존재로 느껴 본다.(영신수련 57)

(답화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어 말을 하거나 듣는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 비난하고, 때로는 ... 연인이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답화는 ... 기도의 맥락 안에서 응답할 마음이 생길 때 (일어난다).(영신수련 54)

선경

아, 그러한 것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염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
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로마 2,1-12)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 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지렛 사람 예수님께서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 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루카 18,35-43)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기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18-25)

질문

당신이 눈멀고, 귀먹고, 무감각한 것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뷰를 사용하면서 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어떻게 깊어졌습니까?

직장 또는 집에서 당신은 어떤 교묘한 방식을 사용해서 죄를 모른 채하거나 변명합니까? 특히 당신의 지위 또는 역할, 그에 따르는 힘이나 영향력과 관련하여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생활과 당신이 속한 단체의 생활에서 어떤 행동 패턴과 역동들이 죄의 맹목과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에 더 비판적이면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중독적인 패턴을 분별하지 못하는 예를 생각해 봅시다.

식별 도움말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악한 영의 행동은 연애 사기꾼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거짓 연인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며 자기 마음대로 차별하는 물건이나 일시적인 심심풀이나 노리게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거짓 연인은 자신의 표리부동함이 백일하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보통은 그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은 종종 유혹을 비밀에 부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책략에 거슬러서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을 지도자나 고해신부나 다른 영적인 사람에게 밝혀서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영신수련 326)

제안

하루를 지내면서, 은총과 죄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소음 또는 폭력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선택들을 하십시오

성찰기도

빛과 감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십시오. 다음 날에 더 충실하게 응답하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홉째 순간

청할 응종

죽음이 하나의 실재임을 이해
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청하
십시오

보충 자료

요한 11:44

1코린 15:50-58

루카 16:19-31

지혜 3:1-11

죽음의 교훈

영시 수련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 두고 하느님과 나를 서로 대비해 본다. 하느님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나는 죽음의 원인이다. 하느님은 사랑의 원천이신데 나는 옹졸한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느님에게서는 모든 좋은 선물이 나오는데 나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기적인 시도로 가득 차 있다.(영신수련 59)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본다.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과 힘을 계속 주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공기과 물... 지구의 모든 자연 산물들... 모든 것이 내가 잘 되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서로 통공하는 모든 성인들은... 나를 돕기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어디를 보든지 갈수록 더 놀라게 된다. 좋은 것이 그토록 많이 주어지는데 왜 나는 그 많은 악을 뿔어내고 있을까(영신수련 60)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중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까.(히브 12:1-13)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2코린 4:7-18)

장차 우리에게 제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18-25)

질문

당신의 죽음과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느끼니까? 다른 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삶에 대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 시기에 당신의 인간적 능력들의 쇠퇴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변화들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또는 변화들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기업 인수, 합병, 구조조정 퇴직금, 조기 퇴직 옵션, 불안한 재정, 노인 요양원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부정적 태도들과 자멸적인 행동들이 심지어 사소한 일에서조차 당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당신을 이끌니까? 당신의 어떤 선택이 당신과 타인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오늘 처리하고 싶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식별 도움말

당신이 매일 겪는 경험과 선택을 통해 강함과 약함, 능력과 한계가 교차하는 모순된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악한 영은 또한 눈치 빠른 지휘관처럼 일할 수도 있다. 그는 수비대의 약점을 공격할 전략을 치밀하게 세운다. 군 지휘관이 찾아내는 약점이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1) 허약함이나 무방비에서 오는 약점과 (2) 자만심이라는 자만족의 약점이다. 악한 영은 이 두 약점 모두를 겨냥하여 공격한다.(영신수련 327)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유언장이나 위임장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성찰기도

매일 양심성찰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선택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민감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열째 순간

정할 은총

죄라는 인간의 굴레에 잡힌 당
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을 체험하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2코린 5:20-6:2
루카 15:11-31
바룩 5장
로마 8:30-39

하나님의 다정한 자비

영신수련

나를 것처럼 잘 대해 주시고 내 주위에 기록하고 선한 사람들과 모든 훌륭한 창조의 선물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께 어
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계속 생명을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새 사람이 되고 싶다.(영신수련 6)

성경

하나님, 당신 자비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거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편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
의 기록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하나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
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 51편)

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겨 나는 희망하네. 주님의 자애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 아침마다 새롭다네.
당신의 신의는 크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뉘,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하고 내 영혼이 밀하네. 당신을 비라는 이
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은 분이. 주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림이 좋다네.(예가 3:21-26)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
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
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시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1-7)

질문

살아오는 동안 어떤 사건이나 인간관계가 당신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해 주었습니까?

자비를 입고 용서받은 것과 연관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상대방에게 드러내야 하는 관계들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용서하거나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인생의 부서지고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더 굳세게 성장했습니까?

당신의 약함과 강함을 살펴볼 때, 당신은 그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배움으로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누룩으로 인식합니까?

제안

기도하는 곳에 십자가상을 두십시오.

성찰기도

성찰기도를 할 때,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자비와 용서에 대해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특별 도움말

관심의 초점을 죄인인 당신의 모습에서 돌려, 죄 많은 당신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부모 같은 하느님께 향하도록 침회와 슬픔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영적 위로의 시기는) 하느님께 불충실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하느님을 구세주로 알고 감사하며 슬퍼하여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때이다. 이러한 위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인식하는 데에서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수난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에게 자신을 한없이 내맡기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는 데에서 올 수도 있으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다른 이유에서 올 수도 있다. (영신수련 316b)

되풀이 기도 II

정성껏 되풀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더 개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지성과 기억이라는 멋진 재능이 있지만, 지성과 기억이 관상의 되풀이 기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차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 이끌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말없이 평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되풀이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순간부터 열째 순간까지의 되풀이를 안내하기 위한 질

문들입니다.

지난 며칠 또는 몇 주간 당신이 청한 은총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청원이 계속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흥미를 끌었습니까? 바라는 그 은총을 기도 안에서 주님께 보이십시오.

이 기간을 되돌아볼 때, 영신수련의 통찰 가운데 의외로 현실적 지혜가 담겨 놀라웠던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 통찰을 숙고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삶의 리듬과 합칠지 성찰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때 의식 속에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속고를 돕기 위해 실제적 제안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제안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 제안들이 당신이 기도와 일상을 통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질문들은 삶의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질문들로 어떤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지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식별 도움말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위로를 받은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위로를 음미하고 당신 안에서 그 경험의 심화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더 자각하는 데 성찰기도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 자각에 대해 성찰하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심화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사진에서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째부터 열째 순간까지 기도하는 동안 올라온 원의, 자각, 통찰들을 이 사진이 어떻게 뒷받침합니까?